

4 종합

추억의 문구점부터 캐리커처까지 즐길 거리 가득할 서울캠 대동제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2024학년도 양캠 가을 대동제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국제캠은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비슷한 시기에 대동제를 계획했으나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강의실 점검으로 해당 기간 교내 시설 이용 및 무대 설치 등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일정을 9월 30일부터 10월 2일로 늦췄지만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변경되며 차질이 생겼고 이후에도 개천절, 한글날과 중간시험 기간이 겹치며 결국 10월 29일부터 31일로 확정했다.

서울캠 대동제는 ‘MASTERPEACE : Kyung Hee’란 이름으로 노천극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학생 부스는 학회, 소모임, 봉사단, 동아리 등이 운영한다. 부스 주제도 다양하다. 사회적 주제를 다룬 캠페인성 부스부터 학생 운영 주점, 미술대학 학생이 캐리커처를 직접 그려주는 부스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속 봉사단 ‘해피 플러스’는 1일 차 낮, 노천극장 앞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부

스를 연다. 해당 부스에서는 점자 체험, 장애를 다룬 문학, 수어로 이름을 배울 수 있다.

이과대학 학생회 ‘이상’은 1일 차 밤 스페이스21관 앞에서 문구점 콘셉트의 주점을 운영한다. ‘이상문구’라는 명칭을 가진 부스에서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쿠팡 각테일을 즐길 수 있다. 이과대학 허 회장은 “문구점 콘셉트로 교내 구성원의 학창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추억의 뽑기와 딱지치기도 진행한다.

미술학부 회화과 23학번이 모여 해나 또는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부스도 있다. ‘미대생이 그림 그려드립니다다람쥐’란 이름으로 2일 차 낮 노천극장 앞에서 연다. 부스 대표자 권가현(회화 2023) 씨는 “축제를 기념해 그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몸에 그림을 남기는 등 추억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부스를 기획했다”며 “산속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미대생이 이번 축제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함께 한다”고 말했다.

초대 가수로는 1일 차 프로미스나인, 예일리, 윤하, 기리보이, 2일 차 에이핑크, 씨엔블루, 비, 비와이가 참여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다만 지난 축제와 달리 이번엔 외부 인존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뜨거운 열정 ‘트로이카 역동전’ 경희 · 서울시립 · 한국외대 정기전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서울】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가 동대문구 일대에서 트로이카 역동전을 개최했다.

트로이카 역동전은 우리학교 총학생회 산하 스포츠 자치기구 고황대하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 체육회 SiPORTS, 한국외대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HUFSPORTS가 공동 주최한 체육 교류전이다. 이번 대회는 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를 맞이했다. 우리학교는 종합 우승인 서울시립대의 뒤를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트로이카 역동전은 경쟁전, 교류전, FESTA로 크게 나뉘었다. 경쟁전의 세부 종목은 남/여 축구, 농구, 리그오브레전드, FC온라인이었다. 경쟁전에서는 선출된 학교 대표팀들이 경쟁했다. 교류전은 각 학교의 운동부들이 만나 야구와 테니스에서 실력을 겨뤘다. FESTA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목은 줄다리기, 탁구 그리고 계주였다.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는 우리학교와 서울시립대가 맞붙었다. 우리학교의 양지석(무역학 2024) 선수가 선제골로 분위기를 주도했으나 시립대가 동점 골을 만들어내며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후반전에서는 시립대가 두 골을 추가해 경기는 아쉽게 마무리됐다.

남자 농구 결승전, 우리학교와 시립대의 경기는 초반부터 시립대



트로이카 역동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유현 기자)

가 경기를 주도했다. 서울시립대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오픈 3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반전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후반전부터 우리학교는 무서운 기세로 추격을 시작했다. 3쿼터에서는 24점씩 동점을 기록했고, 4쿼터에서도 30점 동점을 만들어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립대가 36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해 30점에 그친 우리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했다.

여자 축구에서는 우리학교가 아쉽게 예선 탈락했다. FC온라인 결선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서울시립대와 치열한 접전 끝에 패배했다. 그러나 리그오브레전드 경기에서는 시립대를 상대로 두 세트 모두 큰 점수 차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테니스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승리를 거뒀다. 또한 야구에서는 한국의

대를 16대 3으로 압도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

대회 기간 각 학교에 포토부스를 설치하고 굿즈를 판매하는 등 학생들이 응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기를 관람한 많은 관중들은 이번 대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외대 재학생 배현아 씨는 “다른 학교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인사할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응원하는 학생들도 같은 학교를 응원하다 보니 동질감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고황위원대회운영위원회 김동현(미디어학 2021)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며 대회를 운영한 소감을 전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